

건축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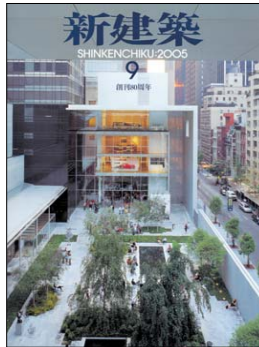
해외잡지동향  
overseas journal

신건축  
a+u

## 신건축

2005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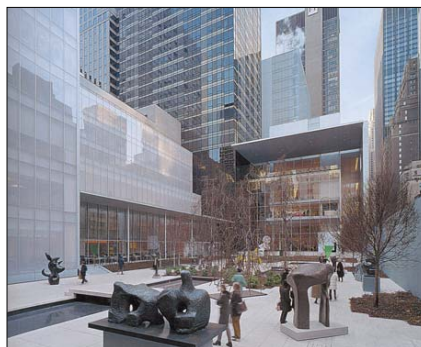
이번 호에 서는 일본인 건축사 타니구찌에 의해 설계되어 최근 재개관한 뉴욕 근대 미술관(MoMA)이 표지를 장식했



다. MoMA가 지니는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이의 증축과 재정비 계획은 그 건축적 완성도를 떠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관한 MoMA는 MoMA의 건축, 디자인 부문 필립존슨 치프 큐레이터인 테렌스 라일리와의 인터뷰를 포함해 이번 호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다.

### 뉴욕근대미술관(MoMA)-설계 : 타니구찌(谷口) 건축설계연구소

뉴욕의 근대미술관은 1929년에 오픈한 세계 최초의 근대미술관으로 개관한 이래 컬렉션을 늘려가면서 시설의 개수와 확장을 반복해 왔다. 그리고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게 된다. '앞으로도 계속 그 시대, 즉 현대의 미술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을 계속해 갈 것인가', 아니면 '20세기까지의 미술관으로 한정하여 앞으로는 봉인할 것인가'라는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것이다. 이는 '근대 미술'이라는 용어의 이중성에 그 문제의 시발점이 있다. 미술관이 개관하던 시기인



뉴욕근대미술관

1930년대 당시의 Modern Art(현대미술)는 이제 '고전적 근대'의 미술이 되어 버렸으며, 모던아트는 더 이상 현대미술을 칭하는 단어로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있어서 LA현대미술관(MoCA)과는 달리 남다른 고민을 근대미술관의 태두인 MoMA는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같은 고민과 맞물려 '계속 맨해튼의 중심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 새롭게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할 것인가'라는 결정 또한 내려야 했다.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현대 미술품을 모아갈 것이며, 따라서 시설 또한 확장되도록 뉴욕의 현 미술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996년의 일이다.

이와 같은 확장계획은 기존 미술관의 인근에 있던 도세트호텔을 매수하면서 새로이 확보된 부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지만 결국 미술관의 대부분을 새로이 재정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되었다. 이 확장 프로젝트는 총 10명의 건축사를 선정하여 '샬럿'이라는 형식의 아이디어 공모를 행했다. 그리고 여기서 선정된 3명의 건축사는 버나드 추미, 헤르조그 앤 드 뮐롱 그리고 최종 당선된 타니구찌였다.

본래 MoMA는 그간 여러차례의 확장을 거듭해 왔다. MoMA의 설립기인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층빌딩과 상업건물이 즐비한 가운데에서도 뉴욕의 6번가와 5번가 사이의 블록은 모두 주거용 건물이었다. 이들은 '브라운 스톤'이라 불렸는데, 주로 4층 건물에 중정을 지닌 형태였으며, 맨해튼의 9할은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중 4개의 브라운 스톤이 최초의 MoMA였던 것이다. 1939년 필립 굿윈/에드워드 뒤럴 스톤 옆에 필립존슨에 의한 증축이 이루어졌으며, 그 후 시저 펠리에 의해 '뮤지엄 타워' 및 조각공원 옆의 '가든 홀'이 완성되었다. 이들은 얼핏 복잡해 보이는 건물구성처럼 보이지만 매우 단순한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건물들이 둘러싸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MoMA가 바꿨던 이번 증축안은 기존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신·구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구했던 것이다. 샬럿을 통해 선별된 3명의 건축사(츄미, 헤르조그 앤 드 므롱, 타니구찌)는 이와 같은 MoMA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타니구찌의 설계안은 그야말로 '근대적'이다. 그의 건축적 어휘와 공간은 고전적 모더니즘의 건축의 모습을 농후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자면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온건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관한 건축계의 비평은 여러 가지로 갈렸다. 그 중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비평가들의 관점은 건물이 너무나도 평범하며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MoMA 관계자들은 타니구찌의 설계를 보고 'MoMA가 원하던 바로 그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타니구찌는 5개의 건물이 복합된 형태의 기존 MoMA건물의 특징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특히 53번가에 면한 입면은 기존의 입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MoMA에 축적되어온 시간의 층들을 남겨두고 싶었던 것이다. 반면 조각공원이 면한 54번가의 입면은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여 일체화된 시설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하였다. 내부 공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 MoMA가 면하고 있는 53번가와 54번가의 두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비를 건물을 관통시키며 배치한 것이다. 이 같은 공용부분의 조정 이외에도 타니구찌는 무미건조했던 MoMA의 건물에 '건축적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기존의 건물은 회색의 카펫이 깔리고 백색의 벽과 천정을 가진, 창도, 천창도 없는 상자와 같은 것이었다. 타니구찌의 설계 또한 백색의 평탄한 벽체들로 이루어진 지극히 근대주의적 어휘를 지니고 있지만 공간의 풍부함은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못지않다. 거대한 창을 통해 도심의 경관을 바라볼 수도 있고, 브릿지를 오고 가며 미술관의 역동적인 공간을 체험할 수도 있으며, 빛과 거대한 벽체가 연출해 내는 역동적인 공간드라마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설계경기에서 최종적으로 타니구찌의 안이 당선되었을 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던 비평가들도 정작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그 건축적 질의 우수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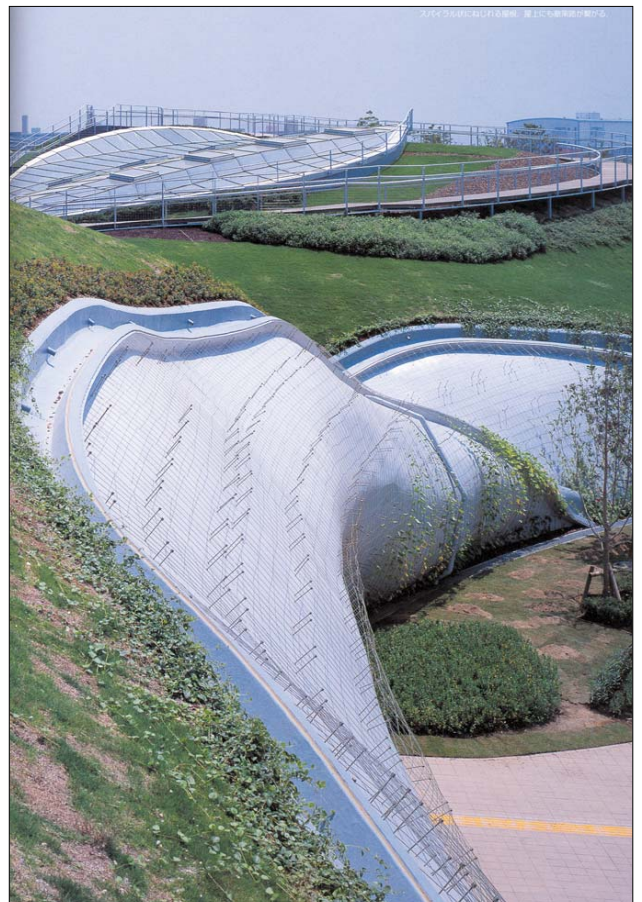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면 때문일 것이다. 겉보기에 평이하고, 조금 과격히 말하면 진부한 건축이기도 한 타니구찌의 설계안은 MoMA관계자의 말대로 MoMA의 성격과 입장을 잘 수용하고 발전시킨 가장 최적의 안이었던 지도 모른다.

**‘그린 그린’ (일본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중핵시설) - 설계 : 이토오 토요 건축설계사무소**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은 후쿠오카시 히가시구(東區)에 조성되고 있는 인공섬인 아일랜드 시티내에 마련된 1.53ha에 달하는 공원이다. 아일랜드 시티는 완성시에 400ha에 이르는 규모로, 이 곳엔 도시계획에 의해 중앙공원과 길이 1.7km의 그린벨트가 계획되어 있다. ‘그린 그린’은 이 중앙공원의 중핵시설로서, 아일랜드 시티에 최초로 완공된 건물이기도 하다. 평탄한 인공의 대지위에 인위적으로 작은 언덕을 만들어 낸 이 건물은 소위 ‘그린 아키텍처’의 리스

트에 그 이름을 올릴 만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셸구조로 된 이 건물은 옥상녹화를 하여 녹음이 뒤덮인 작은 언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지붕 구조물 중 비교적 경사가 강하여 토양을 정착시킬 수 없는 부분은 담쟁이 식물들로 뒤덮일 수 있도록 배려해 놓았다. 그러나 건물의 외관은 그다지 바라보기에 편안하지만은 않다. 어찌 보면 몸을 뒤돌어 가며 들판을 기어

가는 거대한 뱀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붕이자 건물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콘크리트 셸구조를 만드는 것은 그다지 간단치가 않았다. 셸의 곡률이 시시각각 변하는 형태였기 때문이다. 설계자인 이토오는 지붕구조물의 거푸집과 배근이 끝났을 때 지붕에 올라가 본 후 거푸집과 배근의 정교함에 감탄하여 ‘콘크리트를 붓지 않고 저대로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거푸집 중 정교한 손길을 요하는 곳은 가구를 만드는 장인이 작업했으며, 복잡한 3차원 곡면의 배근은 배근공이 직접 컴퓨터로 3차원 배근도를 그려가며 작업했다고 한다.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직능인상(像)이 만들어지는 모습인 것이다. 건물의 내부는 대부분 온실로 사용되고, 그 밖에 회합장, 식당, 휴식공간 및 약간의 사무공간 등이 들어서게 된다. 녹색의 털옷을 걸친 이 콘크리트 덩어리에 대한 평가는 공원이 오픈하게 되는 2009년 이후로 미루어져야 할 것 같다.



‘그린 그린’ (일본 아일랜드시티 중앙공원 중핵시설)

이번 호의 특집은 '초고층건축(Tall Building)'이다. 미국적 건축형식의 상징으로 여겨



졌던 초고층 건물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최근 아시아 및 중동의 각국에서 앞다투어 건설함으로써 그 중심의 이동이 관측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1세기동안의 초고층건축의 흐름을 정리한 안드레 레픽(Andres Lepik)의 에세이와 함께 새로운 초고층건축의 타이포로지 형성을 예고하는 다양한 고층건물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적 산물이었던 초고층건축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빌딩에 가해진 테러 공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초고층 건물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종언(終焉)을 고하는 것으로 비쳐졌는지 모른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 빌딩타입은 그 높이에 대한 기록을 계속 갈아 치워왔다. 그리고 그 기록은 1990년대에 이르기 전, 그러니까 약 1세기동안 모두 미국에서 수립되어왔다. 이 같은 과정에서 20세기의 초고층건물은 경제력과 기술력을 표상하는 상징적 건축형태로서 그 지위를 획득하였던 것이다. 초고층 건물에 대한 구조와 기술의 모든 것이 미국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 그리고 20세기 말까지의 모든 최고 높이의 기록을 미국이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 이 빌딩타입은 미국의 건축적 심벌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던 것이다.

미노루 야마사키에 의해 설계된 세계무역센터빌딩은 좀 특수한 케이스였다. 시카고의 시

어즈타워가 완성되기 전의 약 2년간(1972~1974년)의 기간이긴 했지만 '세계 최고(最高)의 건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일반인들이나 건축비평가들에게 그다지 인기 있는 건물을 아니었지만 분명 미국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이후 이 빌딩타입의 더 이상의 발전에 대한 중지부를 찍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논리를 넘어선 것이었다. 현대의 바벨탑이 사람의 손에 의해 붕괴되고, 높이에 대한 기록 경신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 지니는 위험성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러나 붕괴 직후 일어난 재건의 노력에서 나타난 초고층 건축의 태생적 특성, 즉 미래에 대한 희망의 등불로서의 성격이 실제로 이 건축이 얼마나 위약한 것인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보다 더 강력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2002년에 이루어진 그라운드 제로의 재건을 위한 현상설계에서 리처드 마이어, 유나이티드 아키텍츠 그룹 그리고 SOM은 초고층 건축의 장래의 발전적 모델을 제안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디자인은 수평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서로 얽혀진 타워 밴드에 의해 매우 견고한 구조를 지닌 것이었다. 또한 그 높이도 대폭 낮추어 맨해튼의 스카이라인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고 조용히 그 자태를 드러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초고층 건물이 지니고 있는 유전자적인 추진력이기도 한 근원적 원동력을 상실한 것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초고층 건물의 발전의 역사에 조화를 이룬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디자인에 손을 들어 주었다. 국가적 심벌의 붕괴는 더욱 강한 심벌에 의해 복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리베스킨트는 높이 541m의 프리덤타워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뉴욕이 세계 최고의 건물의 타이틀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약속했다. 9.11의 비극은 이 같은 기록에 대한 보상으로 지워져 갈 듯이 보였다. 리베스킨트에 의한 디자인은 차지권자인 래리 실버스타인이 그가 신뢰하는 건축사 베이빗 찰스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면서 대폭 수정되어 상징적인 높이에 대한 기록만이 남게 되었다. 프리덤 타워의 최종적 형태

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을 즈음, 시카고에서 세계최고의 건물에 대한 도전자가 나타났다. 2005년 7월 부동산개발회사인 포덤 컴퍼니(Fordham Company)가 높이 444m의 115층 건물의 건축계획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최상부에 설치된 안테나부분을 포함하면 609m라는 획기적인 높이에 달하는 것이었다. 스페인의 건축가 산티아고 카스트라바에 의한 이 디자인은 초고층 건물의 라이벌이었던 미국 내 두 도시인 뉴욕과 시카고를 다시금 높이에 대한 국제적 경쟁무대에 올려놓게 되었다.

밀레니엄을 향하여

세계무역센터와 시어즈타워가 완성된 1970년대 초에는 '세계최고의 건물'에 대한 기록 경쟁은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다. 세계적인 석유 파동을 겪은 후 단순히 기록 경신만을 위한 높이에 대한 도전은 경제적 측면에서나 환경적 측면에서나 이미 실현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고층건물의 형식은 노먼 포스터의 '홍콩상하이뱅크본사(1986년)'나 I.M.페이에 의한 '중국은행(1990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구조적 혹은 건축적 컨셉에 의해 풍부함을 더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국제적 경쟁의 전조이기도 했다.

밀레니엄의 전환을 맞이 10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한 경쟁이 다시금 일어났던 것이다. 1988년 시카고에서 발표된 '미글린-베이트러 타워'는 완성되면 609m에 이를 예정이었다. 이보다 더 잘 알려진 1989년 노먼 포스터에 의해 디자인된 도쿄의 '밀레니엄타워'는 높이 840m라는 경이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다. 도쿄만에 계획된 이 거대한 구조물은 최대 인구 6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수직도시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노먼 포스터가 영국 런던에 계획한 훨씬 작은 규모의 '밀레니엄타워'와 마찬가지로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장 누벨은 파리의 라 데팡스 지구에 '무한의 탑'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높이 420m의 이 건물은 완성된다면 유럽 최고의 건물이 될 것이었다. 호주에서는 1995년 투자가

브루노 그롤로가 헤리 사이들러의 설계에 의한 높이 495m의 타워를 멜버른에 세울 계획을 발표했다. 1년 후인 1996년 건축사무소인 '퓨처 시스템'은 '그린 버드'라 칭한 높이 442m의 타워를 제안하였으며, 1998년 SOM에 의해 발표된 시카고의 '7 사우스 디어본 프로젝트'도 609m(2,000피트)에 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1990년대의 경제후퇴국면의 희생자가 되었다.

### 아시아의 대두

밀레니엄을 기다릴 것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의 기록은 처음으로 북미 이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 손에 쥐어졌다. 199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452m의 높이를 갖는 '페트로나스 타워'가 준공되었다. 이어서 또 하나의 기록이 상하이의 '진마오 타워(1999년)'에 의해 세워졌다. 높이 421m의 이 건물은 세계기록을 갱신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본토내의 최고의 건물이 되었으며, 이 높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높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2004년에는 대만의 '타이페이101' 빌딩이 현재의 세계기록인 508m를 수립하였다. KPF가 디자인한 '상하이세계무역센터'는 1997년에 착공했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 속에서 건설은 중단되었으나 새로운 투자자가 매입하여 건설이 재개되었다. 계획대로 2007년에 완성되면 492m에 달하는 이 건물은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상위 10위 이내에는 수 년 내에 432m의 높이를 갖는 중국 남부 광저우에 계획된 '웨스트 타워 프로젝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최근에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국가들이 초고층 건물이라는 빌딩타입에 있어서 급속도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으며, 나아가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빌딩타입의 구상과 계획이 경제적인 힘을 표상하고자 하는 욕구와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시아 제국(諸國)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이 건축의 형식은 이들 지역의 표상

을 요구하는 의식과 합치를 이룬 것이다. 초고층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그 기본계획 단계에서 수익성이 중시된 적은 거의 없다. 되돌아보면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이나 세계무역센터빌딩과 같은 유명한 역사적 프로젝트도, 계획은 경제부의 정점에서 이루어졌으나 완성기에는 경제의 쇠퇴국면을 맞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내지 못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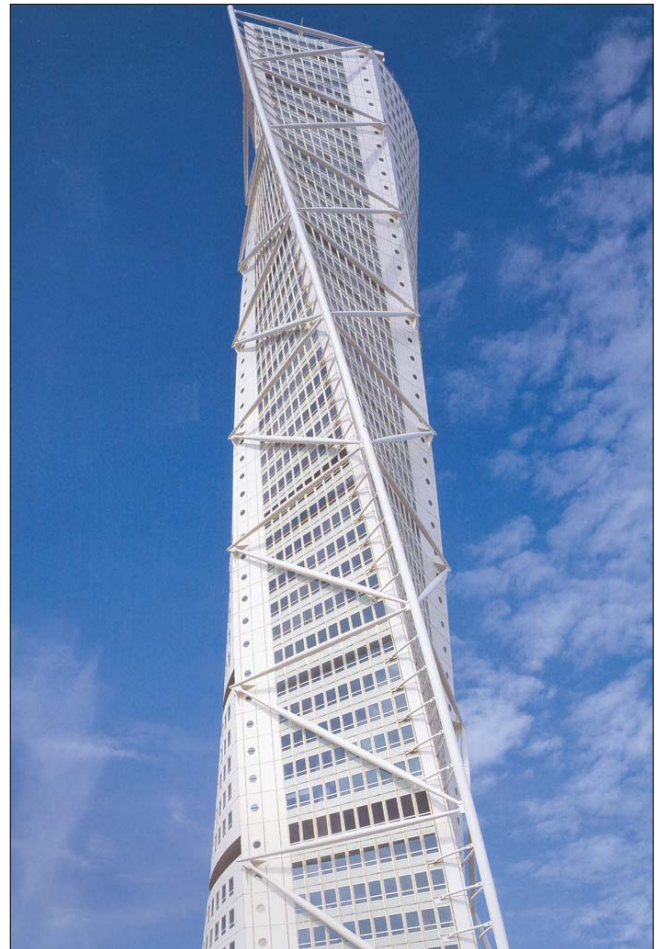
새로운 기록 갱신과 함께 197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초고층 건물에 대한 기술적 한계는 현재 다른 국가들에서 차례차례로 극복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명백해 졌다. 초고층건물은 이미 전 세계에 보급되어 가고 있었지만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일반적으로 미국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에 의하여 초고층 건물은 전지구적(全地球的)건물의 형태가 되었

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 세워지는 초고층 건물의 설계가 이미 고층건축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유명설계사무소, 즉 시카고나 뉴욕의 시저 펠리, SOM, KPF 혹은 런던의 노먼 포스터에 의해 지금도 그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서 마치고 급승용차를 구입할 때와 마

찬가지로 초고층 건물이 어디서 계획되어 건설되는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누가 다음 기록을 세울 것인가이다.

### 유럽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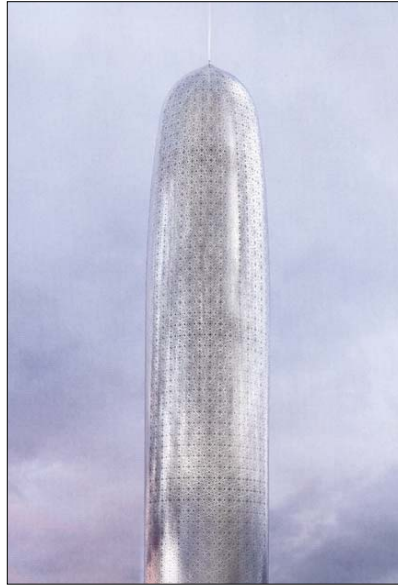
아시아와 아랍의 각국들이 초고층 건물의 경쟁장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이와 같은 국제적 경쟁에서 결코 눈에 띄는 존재가 아니었다. 현재의 '공식적인 세계200대 초고층 건물'의 리스트에 의하면 서유럽에서 가장 상위에 랭크된 것은 76위인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코메르츠방크' 빌딩이다. 이 같은 현상의 기본적인 원인은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유럽의 도시와 역사의 상황에 있다. 국제적인 모더니스트에 의한 독립적인 작업을 제외하고는 유럽에선 초고층 건물을 세우는 전통 자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



터닝 토르소 타워

이다. 유일하게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과 런던 정도가 서로가네 라이벌이 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전제가 되는 스카이라인이 조금씩 발전해 왔던 것이다.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높이 258m의 '코메르츠방크'에 의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1997년 유럽 최고의 고층 건물의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러나 이 타이틀은 모스크바의 '트라이엄프 팰리스(264m)'로 넘겨질 것이며, 다시 같은 도시에서 근년 건설이 시작된 높이 340m의 '페더레이션 타워'에게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완성 이전에는 렌조 피아노에 의한 높이 306m의 런던 브릿지 타워가 잠시 타이틀을 런던에 가져다 줄 것이다.

이처럼 유럽은 높이를 겨루는 국제적인 경쟁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는 근년 개발되어 실현된 고층건물에 대한 흥미로운 컨셉들이 존재한다. 최근(2005년) 완성된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의한 수웨덴 말뫼(Malmö)시의 높이 190m의 '터닝 토르소 타워'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먼트이다. 이 건물이 지니



장 누벨의 도하 타워

는 나선상의 형태는 이제껏 정적인 이미지였던 초고층 건축의 형태에 다이내미즘을 불어넣었다. 한편 구조적으로는 서로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태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형태를 지닌 프로젝트가 최근 런던에 준공한 '30센트 메리 엑스(스위스재보험회사본사, 노먼 포스터 설계, 180m, 2004년 준공)'와 바르셀로나의 '아그바 타워(장 누벨 설계, 142m, 2005년)'이다. 30센트 메리 엑스는 그물 형상의 스틸 구조를 유리 파사드 내측에 배치하였고, 아그바 타워는 복잡한 형태의 콘크리트 외피로 지지하면서 그 외측에 제2의 표층이 되는 유리외피를 덧씌웠다. 두 건물 모두 이 같은 특수한 구조 덕분에 내부에서는 방해되는 사물이 전혀 없는 완벽하게 플렉서블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 건물 파사드의 조작용은 KPR가 설계한 런던의 '비숍스게이트 타워(2005년~)'이나 장 누벨의 도하 타워(카타르, 도하, 2002년~) 등에서 더욱 새로운 시도들은 엿볼 수 있다.

#### 끝나지 않는 '세계 최고(最高)'에 대한 경쟁

9.11테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환경적 혹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등 다양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초고층건축은 21세기의 시작에 있어서도 여전히 활력을 띠고 있는 빌딩타입이

다. 이제 초고층건축은 미국의 산물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것이 되었다. '타이페이101'에서는 최초로 이 빌딩타입을 국가적 전통과 연결지려는 시도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도 초고층건축의 기본적인 개념은 중대한 장래의 발전과 변화의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하늘을 향해 바늘처럼 솟은' 고전적인 형태가 새로운 컨셉에 의해 바뀔지라도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에 대한 개념은 의심할 여지없이 초고층 건물의 발전에 대한 원동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비숍스게이트 타워